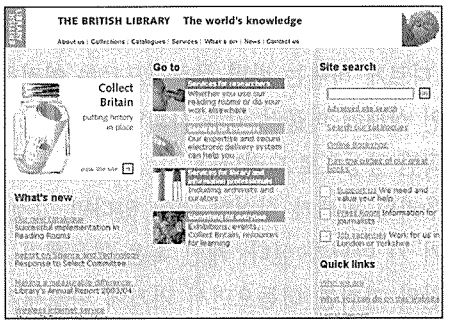
"대영도서관의 오늘"



〈출처 : http://www.bl.uk/index.shtml〉

강창오*

런던 St. Pancras에 소재하고 있는 대영도서관은 전 세계의 국립도서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경제전문가 Solow와 Arrow를 고용하여 대영도서관이 자체 사업을 통해 자국의 경제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도모할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다. 이에 대해 대영도서관이 연간 363만 파운드(현재 한국 화폐가치로 7천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는 1파운드(2000원 정도) 투자에 대해 4.4파운드(88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으로 이 재정적인 힘이 바로 대영도서관이 최상급의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3가지 과제는 먼저 2022~23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소장할 수 있는 서고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일이다. 두번째 과제는 영국 내의 digital archive(디지털 소장) 관리에 있어 직원들과 소장 자료에 대해 계속적인 투자를 하여 고도의 질과 운영을 유지하며 또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다. 세번째는 기존의 자료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존하고 이를 많은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소개하여 그들이 이를 이용해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이다.

나아가서 국내외의 모든 방문객들에게 대영도서관의 무료 전시회들은 정말로 실용적이고 사실적이다. 이용자들은 공공 프로그램에 들어가 일반 도서관 자료는 물론 오디오 CD 버전인 동물의 세계 기록물, 국제 음악, 진귀한 귀중품자료, 문학적 토의 혹은 국제회의의 주제강연등과 같은 CD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이 모든 자료

*대영도서관 사서,
changoh.kang@bl.uk

들을 거의 다 동원해 공공 프로그램과 디지탈 프로그램에 선보인 바 있다. 특히 Painted Labyrinth와 Lindisfarne Gospels 전시회는 과거의 어느 전시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의 방문객을 이끌었다. 현재 대영도서관에는 갖은 진귀한 귀중품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확립해 놓은 무료입장의 John Ritblat Gallery 전시회와 워크숍이 있는데 현재 시크족의 필사본과 그림이 9월말까지 전시중이다. 아울러 현재(9월 12일까지) 열리고 있는 비단길(Silk Road - 무역, 여행, 전쟁 & 종교의 주제로) 전시회와 19세기 이후 중앙아시아의 자연환경, 인종, 생활양식 등을 주제로 촬영된 사진 전람회가 인기를 끌고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도서관 앞 Piazza광장에다 하기(약 두달간) 노천 음악회를 열었는데 이 음악회를 통해서 세계의 타인종들과 문화권의 음악들 그리고 영국내의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들이 각종 악기로 선을 보이고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들어 온라인으로도 자료접속이 가능한 e-learning의 진가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본 도서관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8,173명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 워크숍에 참여했고 대영도서관의 학습 페이지 웹사이트를 찾는 수도 4배로 늘어났다. 이미 분배해 준 교사의 지도교습용 노트와 학생들의 자습 안내서에는 접속된 자료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2,000페이지의 온라인 자료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들을 찾고 조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국가적인 커리큘럼에 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대영도서관을 방문해 연구중인 특수 전문가(학자 및 대학원생 포함)의 수가 매년 400,000명에 이른다. 본 도서관은 다른 고등교육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가들이 소장된 자료(디지탈이나 발행물 등)를 더욱 쉽게 발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금년 1월에는 앞으로 3년 기간에 이르러 100만 유로 달러를 투자해 전유럽 도서관 서비스 계획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각국의 도서관들이 상호간에 자료들을 교류 보급할 수 있게 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잡고 있는 대영도서관은 과학, 의학, 기술, 지능적 재산, 법률, 시장조사, 세계적으로 가장 광대한 특허 분야, 특별 간행물, 데이터베이스 등의 분야에 걸쳐 정보검색을 대행해 주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본인들에게 맞는 예산 및 원하는 기한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 내 80% 이상의 연구 조사 기관단체 및 회사들이 대영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10,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들은 특허, 특별 간행물, 데이터베이스의 분야에 대해서 대외적인 구독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영도서관에 현저히 의존하고 있다.

또 다른 획기적인 발전은 작년에 최신식으로 완성된 안전하고 신속한 자료공급 서비스 제도(Security Electronic Delivery)이다. 이 시스템은 100만 건의 범위 안에서 검색된 정보 자료들을 직접 당사자의 컴퓨터로 조달해 준다.

대영도서관에서 발상 제작된 페이지 넘기기(Turning the Pages - CD-ROM 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 또한 정말로 획기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컴퓨터 화면에 영상으로 나타나는 필사본을 실제로 손을 대어 넘기는 것처럼 똑같은 동작으로 넘길 수 있는데 실상 페이지를 넘기는 일 뿐만 아니라 각 페이지의 내용을 최대한 적합하게 보고 또한 나오는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용자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다.

목록(카탈로깅)을 포함해 모든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써는 최대의 규모인 ILS(Integrated Library System)가 최근에 대영도서관에 도입되었다. 이달 7월중으로 사용에 들어간 1단계의 부분은 지난 2년간에 걸쳐 완성되어졌고 모든 사용자들이 함께 원할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 단계의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증진되고 있다.

DOM(Digital Object Management) 프로그램의 착수는 현재 수집되고 있는 자료들 중 특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 아이템을 다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그리고 사업상의 필요적 요소와 책략으로써 또하나의 주된 큰 성과이다. 이것은 우선 영국내의 디지탈 정보 재산 활용에 따른 영구적 보존은 물론 나아가서는 웹에 소장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외의 모든 동반업체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긍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대영박물관 안에 위치하고 있는 Bloomsbury Studio(주요자료 보존처리부서)는 사용건물의 대여 임기가 2006년까지 만료되므로 대영도서관 St. Pancras의 북쪽의 터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일반자료 보존처리부서와 병합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영도서관은 현재의 운영 방안과 책략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차기 목표로 두고 있다. 그 방편에 있어서 주로 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탐구하는 관계자들은 물론 다른 모든 수준의 관계자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나 상담을 나누고 있는데 이는 먼저 대영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앞으로 좀 더 적절하게 베풀 수 있는 서비스 형태와 연구 양상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계속적인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요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21세기에 들어선 대영도서관의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